

‘레이다’ 용어 표기에 대한 국가 표준어 개정 시행

- 30년 만에 찾은 표준어, 개정된 ‘레이다’ 표기로 통일하자 -

<p>곽 영 길</p>
<p>한국항공대학교</p>

‘RADAR’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이라는 영어의 첫 대문자를 줄인 전문 학술용어이다. 오늘날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들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특정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사용하던 전문 용어들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많이 대중화되고 있다. 외래어 전문 약어는 원문 발음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이를 국가 표준어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부 전문 용어들은 아직도 원래 발음과 다르게 잘못 표기되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오용되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레이다’ 표기이다.

‘레이다’는 국가에 큰 일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항상 ‘레이다’가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한반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X 밴드 ‘RADAR’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AESA 레이더 기술이 국민적 관심을 모은바 있다. 이제는 우리도 한국 최초로 영상 레이더 (SAR)를 탑재한 아리랑 5호 위성은 한반도 주변을 전천후로 감시하고 있고, 현재 후속 레이더 위성 6호도 개발 중에 있다. 최근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KFX)의 최첨단 AESA ‘레이다’도 우리 기술로 개발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사업에 아직도 잘못된 ‘레이더’ 표기를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학회의 레이더연구회에서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잘못 사용되어 온 ‘레이더’ 표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과거 10여년 동안 학계는 물론 산학연관의 레이더 종사자들의 지지를 받아, 정부 기관에 개정을 건의하여 수차례의 국어 심의회를 거듭한 끝에 2014년도에 마침내 공식적으로 ‘레이다’를 국가 표준어로써 ‘원칙적 표기’하도록 개정하였다. 후속 조치로서 2015년판 국립 국어원의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레이다’를 ‘기본 표제어’로 개정하고 고시하였다. 미래부에서는 개정된 ‘레이다’ 표기를 근거로 전파법을 개정하여 ‘레이다’ 표준 표기로 입법 고시하여 2016년 6월 이후 시행하고 있다.

사실 이번 개정은 외래어 표기상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모음 ‘ㅏ’를 단순히 ‘ㅏ’로 바꾸는 일이었지만, 잘못된 표기를 하나 바로잡는데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문 용어를 표준어로 바로잡는 일은 전문 분야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없애고, 후학들의 교육과 연구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원래부터 ‘레이다’ 표기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표준어로 사용되어 왔고, 국제학회나 이 분야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도 ‘레이다’로 표기하고 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reɪda:(r)]로 발음이 표기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음도 ‘레이다’이다. 그러나 1987년도에 외래어 표기를 정비하면서 ‘ㅏ’ 발음을 ‘ㅑ’ 표기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레이다’가 ‘레이더’로 잘못 표기되어 국정 교과서 편수자료에 포함되면서 혼란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디지탈’, ‘데이타’ 등으로 ‘ㅏ’로 표기되었던 외래어 보통 명사들이 그 이후에는 ‘디지탈’, ‘데이터’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레이다’는 전문분야의 약어인데도 불구하고, 보통명사처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레이더’ 발음은 ‘침입자’를 뜻하는 ‘Raider’의 영어 발음과 똑같다. 사실상 ‘레이더’가 ‘레이다’ 표기를 침입하여 지배한 지가 30여년이 되었다.

‘레이더’ 표기가 잘못 표기된 근거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1987년 <국정 교과서 편수> 자료 개정 이전에는 우리말 국어대사전(1961, 민중서림)에 ‘레이다’로 표기되어 있었다. 1960~1980년대 신문 지상에 출현된 Radar 표기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는 ‘레이다’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레이더’ 표기가 확대되고,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레이더’로 등재되면서 대부분의 국어사전들과 전문 과학기술 용어 사전에도 모두 ‘레이더’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인터넷이 확장되고 한글워드 프로세스에 ‘레이더’를 표준어로 보급되면서 거의 90% 이상 ‘레이더’ 표기를 대부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대부분의 레이더 종사자들과 레이더 학계나 전문분야 등에서는 아직도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레이더’ 표기에 대한 거부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직도 레이더 표준어가 개정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관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점차 ‘레이더’가 표기가 지속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개정된 ‘레이더’ 표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학회와 레이더연구회가 앞장 서서 레이더 표기가 개정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레이더 관련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동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 방송 등의 표준 표기는 물론, 레이더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정부 공공단체의 법적 제도적 용어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레이더’ 표기가 국가 표준어로 개정은 되었지만, 과거의 ‘레이더’ 표기를 완전히 폐기하지 못하고 국어심의회에서 여론을 의식하여 ‘관용적 표기’로 일부 인정하는 것은 부담으로 남는다. 외래어는 복수 표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

지금이라도 주무부처에서는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고, ‘레이더’ 표기를 완전히 폐기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후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개정된 국가 표준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실효가 없다. 개정된 지 2년이 지나간다. 우리 학회에서는 지난 2016년도 말에도 주요 언론사에 개정된 표기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 방송에서조차도 ‘레이더’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글 워드에 ‘레이더’를 치면 빨간 줄이 나오고, TV 뉴스나 기상 예보의 자막에도 아직도 ‘레이더’ 표기를 고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회 레이더 연구회가 앞장 서서 주무부처와 함께 언론,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여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개정된 ‘레이더’ 표준어로 통일하여 모두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한글 이름표를 달고 국가적인 첨단 레이더 사업들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 필자소개 ≡

곽 영 길



1976년 2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통신공학과 (공학사)

1981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87년 6월: 미국 오하이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공학박사)

1976년 3월~2001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 책임 연구원, 연구실장

2002년~2008년: 한국전자과학회 레이더연구회 설립위원장

2007년 9월~2008년 8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방문 교수

2009년 9월~2012년 1월: 국회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

2013년 3월~2014년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2014년 12월~2015년 8월: 미국 Naval Postgraduate School 방문교수

2016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수훈

2010년~현재: IEEE AESS Chapter Chair

2001년 3월~현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주 관심분야] Radar System Design, Radar Signal Processing, Synthetic Aperture Radar, Anti-Jamming